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 지리산 쌍계사 '육조혜능정상'의 진실

722년 11월, 당나라의 절강성 항주를 떠난 신라의 두 스님이 서해안의 당포(唐浦)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들은 매우 긴장한 표정으로 배에서 내렸다. 두 스님의 행낭 속에는 놀담게도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었다. 그 머리의 주인공은 바로 제6조 혜능(638~713). 그리고 1,200년이 지난 지금, 혜능의 정상(頂相, 머리)은 하동 쌍계사의 금당 '육조정상탑(六祖頂相塔)' <사진>에 봉안되어 있다고 전해지며 이를 '선종육조혜능대사정상동래연기'라고 부른다.



것으로 큰일을 이룬다면 다행이었습시다"고 말한다.

721년 5월, 상선을 타고 당나라로 출발한 삼법은 3개월 만에 관동성 소주 보림사에 도착한다. 삼법은 육조 혜능의 정상을 모신 탑 앞에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기도를 올리자 감응이 있었다. 그러나 보림사의 경비는 삼법을 의심하며 없애려 했다. 삼법은 당시 강서성 홍주 개원사에 머무는 신라의 선승, 대비 스님의 동조를 구했다. 두 스님은 의논 끝에 1만 금을 주어 중국인 장정만을 매수한 뒤 경비가 소홀한 한밤중에 탑문을 열고 머리를 모셔 나오게 한다. 개원사에서 대기하고 있던 두 스님은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서 항주에 도착, 신라로 돌아온다.

귀국 후 삼법은 꿈속에 나타난 혜능의 지시에 의해 쌍계사, 지금의 금당자리에서 터를 잡고 석함을 만들어 혜능의 정상을 모신 뒤, 17년 동안 선정을 닦았으며 입적하는 순간까지 <육조단경>을 독송했다.

이상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신라 때부터 우리나라 선승들은 6조 혜능을 깊이 숭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고려의 보조 지눌 역시 <육조단경>을 스승으로 삼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중국 광둥성 소관시의 남화사에는 혜능의 불교 법신(不壞法身)이 봉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국 측의 고문헌들은 송·명·청대에 걸쳐서 봉안되었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고, 1981년 10월에 보수되어 지금도 신도들의 경배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쌍계사 금당의 6조 혜능 정상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나 '어느 쪽이 진정한 혜능의 정상을 모시고 오기로 결심한 삼법은 경주 영묘사의 비구니 법정 스님을 찾아가 그간의 사정과 자신의 결심을 전한다. 법정은 바로 김유신 장군의 미망인이었다. 법정은 즉시 2만금을 삼법의 손에 전하면서 "이

6조의 탑문 열고 머리 모셔와

육조단경)을 깊이 흠모했다. 스님은 마침 당나라에서 돌아온 익산 미륵사의 규정 스님으로부터 <육조단경>을 얻고 부처님을 만난 것처럼 향을 사루어 예배한다. 회비가 교차하는 심정으로 <육조단경>을 읽다가 "내가 입적한 뒤 5~6년 뒤에 어떤 사람이 나의 머리를 탈취해 갈 것이다"라는 혜능의 예언(豫言)이 눈이 번쩍 뜨였다. 삼법은 "선사의 정상이 다른 사람의 손에 탈취되기 전에 선사의 정상을 모시고 와서 우리나라 만대의 복선이 되도록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삼법은 "선사의 정상을 모시고 온다면 첫째는 도둑질을 하게 되고, 둘째는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오역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리라"고 갈등한다. 마침내 정상을 모시고 오기로 결심한 삼법은 경주 영묘사의 비구니 법정 스님을 찾아가 그간의 사정과 자신의 결심을 전한다. 법정은 바로 김유신 장군의 미망인이었다. 법정은 즉시 2만금을 삼법의 손에 전하면서 "이

6조의 탑문 열고 머리 모셔와

육조단경)을 깊이 흠모했다. 스님은

마침 당나라에서 돌아온 익산 미륵사의

규정 스님으로부터 <육조단경>을

얻고 부처님을 만난 것처럼 향을 사루어

예배한다. 회비가 교차하는 심정으로

<육조단경>을 읽다가 "내가 입적한

뒤 5~6년 뒤에 어떤 사람이 나의 머리를

탈취해 갈 것이다"라는 혜능의 예언(豫言)이

눈이 번쩍 뜨였다. 삼법은 "선사의 정상이

다른 사람의 손에 탈취되기 전에 선사의

정상을 모시고 와서 우리나라 만대의 복

선이 되도록 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삼법은 "선사의 정상을 모시고 온다면

첫째는 도둑질을 하게 되고, 둘째는 부처

님의 몸에 피를 내는 오역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지옥의 고통을 감내하리라

"고 갈등한다. 마침내 정상을 모시고

오기로 결심한 삼법은 경주 영묘사의

비구니 법정 스님을 찾아가 그간의 사

정과 자신의 결심을 전한다. 법정은

바로 김유신 장군의 미망인이었다. 법

정은 즉시 2만금을 삼법의 손에 전

하면서 "이

고통의 세계 벗어나 극락왕생 발원

참불자의 길 천도제

인간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생은 반드시 있는 걸까' 누구나 한번쯤 살아가면서 물어 봤을 고민이며 의문이다.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해 그 누구도 확실한 답을 해주기 어렵다.

부처님께서는 <선악인과경>에서 "과거의 원인을 알고자 하거든 현재의 결과를 보고, 미래의 결과를 알고자 하거든 현재의 원인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금생의 선행이 내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이다.

불교에서 영가(죽은 사람)를 위해 그의 영혼을 천도하는 재를 지낸다.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 편안하고 인락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것이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영가를 위해 부처님께 축원하고 명복을 비는 것은 망자를 위한 신자의 배려라 할 수 있다.

죽음과 관련된 불교의례를 '천도재(度度齋)'라 하는데 이는 죽은 사람을 위해 불교에서 올리는 재(齋)의

식들의 총칭으로서 수륙재나 49재, 영산재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천도제'는 죽은 사람이 생전에 지었던 모든 악업이나 원한관계 등을 해소하고 청정한 마음을 회복해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윤회와 업의 가르침으로 태어남과 죽음을 설명하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을 받기 위해 중유(中有)의 상태에 머문다고 한다. 이때는 육신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보다도 훨씬 총명해서 진리를 일깨워주면 평상시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천도제'의 주된 내용은 영가에게 <무상계>를 설하여 죽음을 만물이 변화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자연스런 현상이므로 크게 슬퍼하거나 안타까워 할 필요가 없음을 일깨운다. 이와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내서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천도제'는 중생구제를 위한 교화 활동을 망자들에게 확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친지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이 하루속히 큰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의 역할이 더 크다.

이런 천도제 가운데 일반인들에

수륙재·49재·영산재 등

영가위해 부처님께 축원

산자의 슬픔벗기 방편

가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49재다. 불자들 대다수는 망자가 생기면 사찰에 위패를 모셔놓고 49재를 지낸다. 49재란 사람이 죽은지 49일째 지내는 날에 지내는 재를 의미한다. 그러면 왜 하필 49일일까. 천도제를 1달에 2~3회 정도 지낸다는 석암스님(원주 석암포교원 주



◇99년 8월 세컨드 참사로 승진 이들의 극락왕생을 위해 조계사에서 합동위패를 지내고 있다.

지은 "불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다음생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9일이라고 보고, 최종적인 추모의례를 49일째 되는 날 행한다. 따라서 49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망자에게 더 이상의 미련과 집착을 남기지 않게 하는 의식이기도 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스님은 "영가천도를 후손들의 기복발원을 위한 제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도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49재를 지낼 때 7·7재라고 해서 7일에 한 번씩 재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보름에 한 번씩 재를 지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바로 49일안에 재를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또 1백일재와 1주년, 2주년에 해당하는 소상재와 대상재가 있는데 이는 유교적 관습이 불교에 영향을 미쳐 생겨난 것이다.

김주일기자



'서장' 통한 선 공부 ②

의심하면 생과사 번갈아 찾아오지만...

여량중(呂郎中)에 대한 답서



김태완 부스대 강사·철학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 운문 스님이 말하길, '마른 통막대기'라 하였습니다. 오로지 이 회두를 들고 있으면 출연 재주가 다할 때에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 문자를 찾아서 증명하거나 어렵게 이리저리 헤아려서 주석하고 해설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렇게 주해(註解)한 것이 분명하며 설명에 귀결점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귀신 소굴의 살림살이일 뿐입니다."

의심(疑心)을 부수어 버리지 못하면 삶과 죽음이 번갈아 찾아오지만, 의심을 부수어 버리면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끊어집니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끊어지면 부처라는 견해와 진리라는 견해가 진해오며 오해가 없게 됩니다.

물며 다시 중생이라는 견해와 번뇌라는 견해를 일으키겠습니까?

다만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마른 통막대기 위로 가져와 한 번 맞닥뜨려서 딱 들어맞게 되면, 생사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과 사랑분별하는 마음과 총명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을 느낄 때에 공(空)에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득 들어맞은 곳에서 소식을 끊어버리면 일평생 윤회하기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심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 대한 확신과 믿음인가? 자신의 본래면목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다. 스스로의 본래면목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결국 밖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

다. 그리하여 두려움과 편안함이 교차하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왔다 갔다 하며, 늘 이리 저리 사랑하고 분별하여 모양(相)을 찾아 발붙여 다닌다.

회두란 이런 불안한 의심의 상태가 끝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회두를 들고 공부할 때에는, 다만 회두만을 들고서 살피고 또 살피서 사랑분별이 끝나는 곳까지 나아가, 허공(虛) 속의 허공(虛)이 아니라, 비로소 허공이 본래 허무(虛無)가 아니라 가장 견고한 바탕임을 알고, 크게 안도하며 쉬게 되는 것이다. 티끌만 한 것이라도 의지하게 되면, 아무리 견해가 훌륭하고 분별이 분명 하더라도, 처음부터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결국 회두 잡구의 승배 여부는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 는 허공으로 발을 내딛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 있다. 어디가 허공이며 어떻게 허공으로 발을 내딛는가? 허공은 바로 지금 보고 · 듣고 · 말하고 · 움직이는 가운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보고 · 듣고 · 말하고 · 움직이는 모양에 막히지만 알을 수 없으면, 그 모든 것이 곧 허공이다. 매 순간 순간의 행동거지(行動舉止) 속에서 허공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그 행동거지의 모양에 막히기 때문이다.

허공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말을 하지만 이것은 방편의 말일 뿐이고, 사실은 따로 허공이 있어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 보고 · 듣고 · 말하고 · 움직이는 이것이 모두 허공일 뿐인데, 단지

스스로가 모양에 막혀서 허공을 모르는 것이다. 다만 스스로가 잡고 있는 모양을 놓아버릴 수만 있으면, 보는 것이 허공이고 듣는 것이 허공이며 말하는 것이 허공이고 움직이는 것이 허공이다. 이렇게 되면 보고 · 듣고 · 말하고 · 움직임에 막힘 없이 자재하게 된다.

그러므로 회두를 참구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마른 통막대기' 위로 모든 것을 던져 버리고 오직 '마른 통막대기'에만 의지하되, '마른 통막대기'가 '마른 통막대기'가 아니라 다만 의지할 곳 없는 허공이고 허공이 바로 '마른 통막대기'로서, 모든 것은 이 허공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이 저절로 밝아질 때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성급히 허공을 헤아려 본다면, 혹은 허공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생각에 매달리면, 평생 끝날 날이 없을 것이다.

http://www.mmdfree.net/

ENGAGED BUDDHISM

참여불교

값 5,000원
1년 정기구독 25,000원

티베트 불교, 현장 속으로!

특집 I 티베트 불교, 그 현장을 가다

- 탐방기 인과 인연며 미래 기다린다 / 독립의 그날까지 비폭력으로 / 모든 사람 사랑하면 부처님 된대요
- 달라이 라마 스님과의 일문일답
- 우리가 티베트 돕기에 나서야 하는 이유

특집 II 교단내 비폭력 평화실현의 과제

전두담형 인사법 개정안, 정부 예산강화도 대국민 고령 자초

특집기고 10.27법난을 기억하십니까? 불교종교운동의 새로운 맥락과 실천

교계초점 - 사변복권 특별법 제정 화합전기 마인을 / '참회정진' 이 먼저다

민남 천주교 광주대교구 노동조합 박춘우위원장 "우리는 신앙인이자 노동자입니다"

거사열전 '불교적 경망' 실천했던 동명 강석진

기획연재 유입의 참여불교 국가권력과 종교

이런일 저런생각 "사진 전달자 아닌 당사자로 살고 싶다"

"우리는 결코, 침략자 중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난 7월 국내불자 수십명이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 스님을 원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방문단원들은 그곳 티베트인들의 미소에 담긴, 독립을 향한 끝없는 의지를 확인하고 마음 한구석으로부터 끓어오르는 연민의 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일제침략시절 조국독립을 위해 만주벌판에서 활약했던 수많은 우리의 애국지사들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티베트는 중국의 지배에 들어간지 42년이 흐른 지금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식민지입니다. 티베트 본토는 중국당국의 통치전략에 의해 상당부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만 다람살라 망명정부의 티베트 전통을 지켜가며 본토에 끊임없이 문화적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교로 민족정통을 이어 가는, 우리의 생김새도 비슷하고 언어도 유사한 식민지의 나라 티베트.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니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불교전통과 조국사랑의 지혜를 말입니다.

www.buddha21.org

전화 02-725-6231-2 팩스 725-6233 buddha21@buddha21.net (9-110-140) 서울시 동대문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302호

정기구독신청 02-725-6231

여시아문 집계 연속 1위의 화제의 신간!

이 시대 수행자들이 들려주는

나의 행자시절

뾰뾰했던 초발심의 행자시절을 거치며 묵묵히 출가의 길을 걷고 있는 45인의 스님들 이야기!

고봉 광우 도건 도법 도윤 동광 명고 무관 범통 범홍 보경 보광 불금 상륜 석주 선용 송암 송철 영진 윤경 원담 원소 원타 원택 원운 윤각 익두 인묵 인환 일면 일진 장림 중림 중성 지명 진철 천운 탄성 동광 해거 해광 해남 해담 효림 효명

편안함과 쉬운 길만은 가려 하는 현대인들에게 참된 수행의 길을 제시한 맵सान '시집살이' 이야기!

월간 <해인> 기자 박원자 엮음

절안의 생활, 절속의 문화재

- 우리나라 절안의 생활 모습과 소중한 불교문화재를 해설한 불자 필독서!
- 불교의식에서 필수적으로 독송되는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의 원문과 해석을 실은 불교 입문서!

다함미디어 TEL 02) 528-0136/7
각권 값 8,000원